

『태풍의 계절』의 서사 전략과 ‘검은 열대 지대’

이 성 훈

(서울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현재 멕시코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페르난다 멜초르(Fernanda Melchor)의 『태풍의 계절』은 ‘라 부르하(La bruja)’라는 인물에 대한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실제 범죄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라 마토사(La Matosa)’에 살고 있는 주변부적인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 라 마토사 마을에서 벌어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당대 멕시코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베라크루스에 토대를 둔 허구의 마을인 라 마토사 주민들의 일상은 신자유주의 이후 멕시코 현실의 은유인 셈이다.

멜초르는 이렇게 만들어낸 자신의 소설 공간을 ‘검은 열대 지대(el trópico negro)’라고 명명하고 있다. 검은 열대 지대는 작열하는 태양과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개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간이며, 이 안에서 개인들은 계획적인 삶보다는 즉자적인 쾌락에 의존하고 있다. 『태풍의 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검은 열대 지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멜초르는 검은 열대 지대라는 공간을 통해 베라크루스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한다.

한편으로는 멜초르가 글로벌 출판 자본이 요구하는 공식에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세계화 국면에서 글로벌 출판 시장이 그려 놓은 공식 밖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가능하다. 멜초르는 영상 매체에 토대를 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득세하는 당대에서 현실을 그려내는 나름의 소설 미학을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태풍의 계절』에 나타난 라 마토사라는 상상적 공간이 갖는 의미와, 범죄 사건을 통해 당대 멕시코를 드러내려는 멜초르의 서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페르난다 멜초르, 『태풍의 계절』, 사건 기사, 검은열대 지대

I. 서론

현재 멕시코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페르난다 멜초르(Fernanda Melchor)는 1982년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모두 4권의 작품집을 출판했다.¹⁾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그는 자신이 쓴 저널리즘 산문을 모은 첫 번째 작품집인 『이곳은 마이애미가 아니다(Aquí no es Miami)』를 2013년 발표했다. 그가 소설가로서 첫 소설인 『가짜 토끼(Falsa Liebe)』를 출판한 것도 같은 해였다. 이 소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2014년 영국에서 열린 멕시코의 해(Año de México)를 앞두고 ‘멕시코 20(México 20)’에 40세 미만 20명의 젊은 멕시코 작가에 선정되었다(Tijerina Martínez 2022:10-11). 2017년 출판한 두 번째 소설인 『태풍의 계절(Temporada de huracanes)』로 2019년 베를린 세계문화전당(Casa de la Culturas of Berlin World Culture)이 수여한 세계문학상과 안나 세거스(Anna Seghers) 상을 수상했다. 이후 영문 번역본으로 맨부커 국제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고,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은 2023년 넷플릭스(Netflix)에 의해 영화화 될 정도로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²⁾

『태풍의 계절』은 ‘라 부르하(La bruja)’, 즉 마녀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멜초르는 베라크루스(Veracruz) 주에서 벌어진 범죄에 영감을 얻어 『태풍의 계절』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실제 벌어진 범죄 사건을 확장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라 마토사(La Matosa)’ 마을의 주변부적 인물들을 소설적으로 구성해 낸다. 범죄를 다루는 이른바 ‘범죄 기사(nota roja)’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 황폐화되고 불안정

1) *Aquí no es Miami*(2013), *Falsa liebre*(2013), *Temporada de huracanes*(2017), *Páradais*(2021). 이 중 첫 번째는 자신의 신문기사를 다룬 모음집이고 나머지 세 권이 소설이다.

2) 이 영화는 멕시코 여성감독으로 2007년 칸영화제에서 단편부분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엘리사 밀러(Elisa Miller)가 감독했고 올해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https://www.la-prensa.com.mx/gossip/que-ver-en-netflix-conoce-los-estrenos-que-lle-garan-este-otono-10618031.html>

한 신체들이 거주하는 당대 멕시코의 살풍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범죄가 벌어지는 공간인 라 마토사에서 등장인물들은 빈곤, 마약, 알코올 중독, 실업, 동성애, 매춘, 폭력, 범죄 등의 일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멜초르는 만연한 폭력적 조건 속에서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행위들을 걱정적이고 과장된 언어의 형태로 드러내면서 당대 멕시코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베라크루스에 토대를 둔 허구의 마을인 라 마토사 주민들의 일상은 신자유주의 이후 멕시코 현실의 은유인 셈이다. 특히, 그가 가상의 장소인 라 마토사의 황폐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일그러진 욕망이다. 소외되고 주변적인 ‘검은 열대 지대’에서 특히 남성 인물들이 갖는 성적 욕망과 좌절에 주목하고 있다.

멜초르는 출신지인 베라크루스(Veracruz)를 자신의 작품들에서 소설적 공간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진원지 중 하나로 폭력적인 멕시코 상황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범죄가 빈번한 베라크루스 항구와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저널리즘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약 밀매와 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멜초르는 이렇게 만들어낸 자신의 소설 공간을 ‘검은 열대 지대(el trópico negro)’라고 명명하고 있다(Sánchez 2021:79-80). 검은 열대 지대는 작열하는 태양과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개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간이며, 이 안에서 개인들은 계획적인 삶보다는 즉자적인 쾌락에 의존하고 있다. 『태풍의 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검은 열대 지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데, 멜초르는 검은 열대 지대라는 공간을 통해 베라크루스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넘어서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 글에서는 『태풍의 계절』에 나타난 라 마토사라는 상상적 공간이 갖는 의미와, 범죄 사건을 통해 당대 멕시코를 드러내려는 멜초르의 서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라 마토사는 폭력과 빈곤이 짓누르는 황량한 공간으로, 구체적인 지역을 넘어서는 문학적 공간이자 당대 멕시코의 혼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검은 열대 지대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방향성 없이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이런 삶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멜초르는 범죄 기사의 경험을 넘어서는 서사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심화된 폭력과 빈곤으로 질식할 것 같은 멕시코 현실을 다루고 있다.

II. ‘마녀 살해’를 둘러싼 이야기들

이 작품은 ‘마녀’ 살해라는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녀의 시체가 발견되는 1장부터 그녀가 묻히게 되는 8장까지 관련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서술된다. 폭력과 범죄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인 더위가 그곳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5월이 되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다가를 태풍 철은 만만치 않을 듯했다. 불길한 징조가 보이더니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목이 잘리고 토막 난 시체들은 천에 돌돌 말린 채, 혹은 비닐 봉지에 담긴 채 도로변에 던져지거나 마을 끝자락에 급하게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346)³⁾

첫 번째 장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강가로 놀러 온 아이들이 부패하고 마치 “웃고 있는 것”(47) 같은 마녀의 시체를 발견한다. 이렇게 소설의 주요 축이 되는 마녀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번째 장은 산사태로 폐허가 됐던 라 마토사 마을이 유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와 함께 다시 주민들이 살게 된 배경을 그리고 있다. 또한 서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마녀가 마을에 자리 잡게 된 이유와 그가 하는 일 등을 그리고 있다.⁴⁾ 그는 마을에서 고립된 채 외딴집에서 어머니 마녀와 함께 살면서 새끼 마녀(Bruja chica)로 불리다가 어머니 마녀가 죽은 이후에 마녀로 불리게 된다. 어머니 마녀는 마을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주술과 약물 처방을 해 왔는데 이 역할도 새끼 마녀가 물려받았다. 또한 새끼 마녀가 마을 청년들과 맺고 있는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장부터는 관

3) 인용문은 엄지영의 번역본을 따랐고, 별다른 표시가 없는 괄호안의 숫자는 『태풍의 계절』(을유문화사, 2022)의 페이지를 표시한다.

4) 작품 속에서 마녀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그’라는 지시대명사로 표현하지만, 그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 속에서 남성이라는 젠더를 지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중립적인 의미이다.

점을 바꾸어 살인 사건 관련자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루이스미(Luismi)의 사촌인 예세니아(Yesenia)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다. 그녀가 할머니 집에서 루이스미를 비롯한 사촌 동생들과 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루이스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그리고 있다. 또 루이스미가 마녀의 집에서 실신한 마녀를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다. 네 번째 장은 루이스미의 계부인 문라(Munra)의 시각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루이스미의 아버지가 죽자 루이스미의 어머니인 차벨라(Chavela)와 살고 있다. 마녀와의 동성애 관계를 예세니아에게 들킨 루이스미도 할머니 집을 나와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 이후 루이스미의 부탁을 받고 마녀 살해 사건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다섯 번째 장은 루이스미와 함께 문라의 집에 살고 있는 노르마(Norma)의 이야기이다. 그녀가 가족을 떠나 라 마토사에 오게 된 이유와 함께 차벨라의 강권으로 마녀의 약물을 통해 불법 낙태를 하게 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여섯 번째는 루이스미의 친구이자 마녀 살해에 참여한 브란도(Brandó)의 얘기이다.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그를 중심으로 그의 성적 취향과 범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일곱 번째 장은 마녀의 죽음 이후에 라 마토사와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준다. 마지막인 8장은 한 노인이 시체 안치소에서 온 여러 시신과 마녀의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녀 살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들과 목소리들을 통해 라 마토사 마을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 마녀 살해 사건에 개입한 인물들은 루이스미와 브란도 그리고 문라이지만, 이들 중 살해에 직접 참여한 인물은 친구 사이인 루이스미와 브란도이다. 이들은 일자리나 어른들의 적절한 보호 없이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하여 탈출구 없는 현실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중 브란도는 루이스미와의 동성애 관계 이후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기회를 얻고자 한다. 루이스미 역시 병원에 입원한 루이스미의 치료비와 마녀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브란도와 루이스미는 마녀를 약탈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라 역시 차량으로 그들을 마녀의 집에 실어다 주면서 범죄에 미

필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청소년인 루이스미나 브란도와 달리 성인인 문라 역시 다른 남성 등장인물들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그는 목발에 의존하며 별다른 직업도 없이 윤락업에 종사하는 차벨라에게 기생하고 있다. 차벨라가 돈벌이를 위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 비굴한 삶이다. 이렇게 시작된 범죄는 마녀에게서 돈을 구하지 못하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끝난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남성 인물들과 달리 여성 인물들은 가족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루이스미의 사촌인 예세니아는 어머니 없이 할머니 집에서 나이 어린 사촌 동생들과 할머니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할머니는 여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그녀를 구박하며 무시한다. 반면 할머니는 루이스미를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했다. 예세니아가 할머니에게 루이스미가 마녀의 집에 열린 동성에 파티에 참석했다고 알려주었지만, 오히려 사촌 남동생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 즉, 할머니는 “가위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칼을 싹둑싹둑 잘라” 버리고, “개처럼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게 했던 것이다.(75)

루이스미의 어머니인 차벨라는 루이스미의 아버지가 죽자 자식인 루이스미를 남겨두고 시댁을 떠나 매춘업을 계속한다.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생존과 두 번째 남편인 문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부도덕한 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루이스미가 데려온 노르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애정을 보여주고 불법이지만 낙태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르마(Norma)의 경우는 더욱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아버지 없이 엄마가 낳은 배다른 동생들을 열악한 상황에서 돌보며 살다가 엄마의 정부인 페페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된다. 13살 어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자살을 위해 가출을 했지만 우연히 루이스미를 만나게 되고, 루이스미와 같이 살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마녀가 처방한 불법 낙태 후유증으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루이스미와 차벨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작품에는 트랜스젠더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무기력한 남성들, 사회적 편견에 고통 받는 여성들과 함께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한

다. 이들의 삶과 시각을 통해 라 마토사 마을은 당대 멕시코의 묵시록적 상황을 은유해내고 있는 것이다.

III. ‘범죄 기사’ 스타일과 ‘하드보일드’ 소설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인 마녀 살해는 트랜스젠더 인물의 살인이라는 단순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와 밀접한 연결을 갖는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적 위기로 인해 멕시코가 경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과 부패, 그리고 폭력이라는 맥락이 있는 것이다. 즉,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던 마약과의 전쟁으로 특징지어진 펠리페 칼데론 시기(2006-2012), 그리고 석유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친 엔리케 페냐 니에토 시기(2012-2018)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 동안 멕시코 사회는 정치 사회적 혼란, 빈곤, 부패 등으로 시민들의 삶은 피해를 겪었다(Walczak 2020:619).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야기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범죄 또한 증가했다. 성차별적 가부장적 문화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위기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었다.

페르난다 멜초르가 당대 멕시코 사회상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범죄를 다루는 이른바 ‘범죄 기사(nota roja)’와⁵⁾ ‘하드보일드’ 소설 스타일이다. 멜초르는 이 소설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신문에서 카르델(Cardel) 지방에서 벌어진 범죄 내용과 피해자 및 가해자들을 다룬 기사를 읽었고”, 이 인물들을 『태풍의 계절』의 등장인물로 삼았지만 나머지는 가상의 것들을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3). 즉, 멜초르는 범죄 사건을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다룬 “범죄 기사의 미학적 경험”

5) 범죄 사건을 다루는 선정적 기사를 “nota roja”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재판소가 판결문에 서명했던 붉은색 낙인에서 유래했으며, 1889년 과달라하라의 한 신문이 살인사건 기사에 대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붉은 색 잉크로 손 프린트를 찍은 신문을 배포했던 것에서 기인한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0 각주 1에서 재인용).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어려워 여기에서는 ‘범죄 기사’로 번역했다.

을 통해 베라쿠르스의 폭력적인 현실을 포착하려 했던 것이다. 즉, “머리가 잘린 시체, 난도질당한 시체, 총격전” 등은 베라쿠르스와 관련해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뉴스였다. 멜초르는 로스 세타스(Los zetas)로 알려진 범죄 조직이 2005년 자리 잡으면서 마약 밀매와 살인 사건이 빈번해진 베라쿠르스의 구조적인 현실을 작품 속에서 다루려 했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0-61). 이를 위해서 범죄 기사들의 저널리즘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범죄 기사는 통상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일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폭력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을 간과한다. 따라서 멜초르는 『태풍의 계절』에서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라쿠르스 갈대밭에서 벌어진 “비참함, 절망적인 사랑, 잔인함 및 광란의 분위기”를 당대 사회에 대한 은유로 확장하고자 했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1).

624. 따라서 멜초르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살인 사건은 마녀 개인에 대한 살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마녀라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락으로 확장 가능하고, 폭력이 만연한 신자유주의 시기 멕시코 당대에 대한 환기이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마침표와 쉼표가 거의 없는 문장들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서사는 끝없는 투박한 말들로 증가된 절망적인 외침”처럼 보인다(Walczak 2020:624). 모든 등장인물들이 당면한 삶의 조건은 거칠고 황량하며, 서로 간의 연대와 긍정적인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녀의 죽음, 그리고 이후 등장인물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결말은 비관적이고 질식할 것 같은 절망이 짓누르고 있다.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바깥의 공간이다. 매장터의 노인이 실려 온 시신들을 매장하면서 보여준 독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절망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게 급선무였다. 고난의 삶이 이제 다 끝났으니 어둠도 곧 사라질 거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게 뭐 있겠소. [...] 이제는 비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을 거고, 어둠도 영영 계속 되지는 않을 거요. 보셨소?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 마치 별처럼 보이는 저 작은 빛 말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요. 그가 그들에게 설명했다.

저기가 바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길ियो.(355-356)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풍의 계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은 라 마토사 마을이다. 마녀와 이웃 사람들이 사는 갈대밭 마을로 마치 마술적 사실주의 공간 같아 보이지만, 마콘도와는 달리 이 열대 마을은 “끔찍하고, 일탈적이고, 야만적”이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3). 이런 점에서 멜초르가 그려내는 라 마토사는 신자유주의 위기를 경험하는 묵시론적 멕시코의 상징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묵시론적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 멜초르는 범죄소설 스타일을 사용했다. 이러한 범죄소설 스타일을 ‘하드보일드 소설’이라 하는데, 일부 이론가들은 이것을 당대의 사회적 재현에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간주한다(Walczak 2020:617-618). 따라서 20세기 후반 멕시코 문학에 등장하는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부패와 혼란이 멕시코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회 및 국가 비판을 표현하는 문학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드보일드 소설이 멕시코에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유행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Walczak 2020:617-618). 특히, 여성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던 ‘젠더 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풍의 계절』에서는 특히 트랜스젠더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를 갖는다. 마을 주민들이 마녀의 시신이 강가에서 떠올랐을 때 했던 위의 지문에서 그녀를 지칭하는 “미친(loca)”이라는 단어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편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Walczak 2020:623). 이런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을 고려할 때 멜초르의 문제제기는 의미를 갖는다.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 아이들이 마녀를 발견했을 때 시신은 이미 퐁퐁 불었는데, 눈알이 빠져있고, 짐승들이 얼 굴의 일부를 뜯어 먹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친 여자(la pobre loca)가 싱긋이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47, 원본 22)

마을 주민들은 트랜스젠더인 마녀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백안시 하지만

마녀에게 주술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질병 치료와 낙태를 위해 ‘마법의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다. 마을 청년들 역시 마녀의 집에서 공짜로 마약과 술을 즐기면서 동성애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마녀의 집에는 일종의 퀴어 섹슈얼리티 공동체가 형성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루이스미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자의는 아니지만 마녀와 구강성교를 가진 브란도의 말 속에는 이들이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이 죽인 게 하필 호모였을 뿐이지, 브란도가 의도적으로 호모를 죽이려던 것 절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물론 마녀는 그런 일을 당해도 썩 인간이긴 했다. 추접스러운 호모인데다 파렴치하고 악독한 짓을 일삼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런 더러운 호모 새끼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249)

브란도의 이런 진술은 구치소에 있던 다른 범죄자들이 그를 동성애자로 간주하고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즉, 그 역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도 범죄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는 전설적인 보물을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것처럼 라 마토사는 일종의 소수자 공간이 존재한다. 마녀의 집에서 루이스미와 마녀의 주도하에 은밀한 파티가 열리지만, 마녀의 집 지하실에서는 소수자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공간은 “단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슴을 찢는 고통만이 아른거리고” 있는 집이다.(349)

이처럼 페르난다 멜초르는 범죄 기사를 다루는 ‘선정적 기사’가 갖는 자극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성소수자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멜초르는 범죄 기사가 젠더적 관점이 없이 범죄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Godínez Rivas and Román Nieto 2019:67). 멕시코 사회에서 행사되는 폭력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실행되며, 자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의 문제제기는 적절하

다. 남성 우월주의, 여성 차별, 동성애 혐오에서 야기된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역사적으로 멕시코 사회가 강제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벨초르가 그려내고 있는 마녀 살해는 신자유주의 위기 속에서 심화 된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IV. 라 마토사 마을과 ‘검은 열대 지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작품의 중심에는 젊은 동성애자들이 저지른 트랜스젠더인 마녀 살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주변부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즉,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젊은이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 범죄 조직의 수장과 관련된 매춘부, 의붓아버지와와의 관계로 임신한 소녀,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병적으로 종교에 집착하는 여성 등의 이야기가 엮여 있다. 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태풍의 계절』의 공간은 베라크루스 열대 지역에 위치한 가상의 공간인 라 마토사 마을이다. 이 마을은 멕시코 만의 유전 지대를 연결해주는 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여러 주변 마을들과 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전 개발과 도로 건설 붐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 라 마토사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1978년 산 사태로 거의 폐허로 변해 “마을의 4/3이 묘지로 변하고”, 온 들판이 물에 잠겼고 모든 것이 썩어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유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34)

그곳이 다시 봄빈 건 많은 외지인들이 고속 도로 건설 공사에서 일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몰려들면서부터이다. 비야를 관통하게 될 새 고속도로는 마을 북쪽에 있는 팔로가초와 최근에 발견된 유전과 항구와 주도를 이어 줄 계획이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그 주변으로 임시 숙소와 간이음식점이 생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술집과 여관, 그리고 매음굴이 잡초 폐처럼 생겨났다.(36)

이처럼 라 마토사는 거의 폐허가 된 마을이었다가 유전 개발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필요에 의해 도로가 건설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운전사와 건설 노동자와 보따리장수와 날뽕팔이들이 그 지루한 도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휴식처”로서 이 마을이 등장한 곳이다.(36) 그러나 이 마을은 우기가 되면 온갖 나무와 풀들이 뒤엉킨 채 “주변의 민가와 밭을 죄다 집어삼킬 듯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는” 생존이 늘 위협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 라 마토사에서 마녀의 집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라 마토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지만 마녀의 집은 거의 완전히 외부와 폐쇄된 2층 건물로, 유일한 쪽문까지도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 외부와 자유로운 소통을 막고 있다. 그러나 술집에서 남자들은 술에 취해 마녀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스스로 그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떠벌인다. 동성애자들과 마을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 그리고 약간의 금전적 대가를 위해 그 집을 찾는 것이다.

늙은 마녀는 콘크리트 블록과 시멘트, 목재와 철망을 이용해 손수 집안의 창문을 모두 막아 버렸고, 심지어는 거의 검은 빛깔을 띤 현관문,(...) 또한 열리지 않도록 벽돌과 나무판자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 이후로는 안마당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작은 옆문을 통해서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32)

마을 청년들은 자신들의 욕망이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은밀하게 이 집에 드나드는데, 이처럼 마녀의 집은 억제된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한다. 라 마토사 마을이 도로변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과 욕망을 배설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듯이, 마녀의 집은 라마토사 마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멜초르는 사건기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듯이, 작품 속에 베라크루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반영한다. 실제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이 해안 평원과 같은 베라크루스의 공간적 참조물에서 출발하며 항상 자신의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문화를 고려한다고 말한다. 멜초르가 설명하듯이 베라크루스 항구와 근처 마을들은 그의 소설적 재현 공간이자,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며, “폭력과 황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Tijerina

Martínez 2022:13-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초르의 작품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나 지명, 인물들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멜초르는 특정 공간에 고착되지 않는 소외, 착취, 빈곤, 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보편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페르난다 멜초르는 이 공간을 “검은 열대 지대”라고 명명하면서 베라크루스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넘어 보편화한다. 스스로 이 작품을 ‘검은 열대 지대’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가 베라크루스 항구와 그 주변의 시골 지역에서 겪은 경험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우울하고 폭력적인 열대 지방”이 자신의 상상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Sánchez 2021:79-80).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소설의 출발점은 ‘검은 열대 지대’라고 하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소설미학을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검은 열대 지대를 통해 멕시코 서사에서 마약과 폭력을 다루는 장소로 주로 다뤄지던 공간이 미멕시코국경지대에서 멕시코의 남쪽과 중앙지역으로 확장된다(Hernández Bautista 2022:153). 『태풍의 계절』 또한 남부 열대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빈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그러진 남성성을 통해 멕시코 사회의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멜초르가 말하는 검은 열대 지대는 더위와 우기라는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석유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대규모 유전 개발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멜초르의 작품 분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태풍의 계절』은 유전 개발을 통한 풍요라는 명분아래 고속도로 인근에서 매춘을 통해 기생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멕시코만의 추출 자본주의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Morales Hernández 2023:130).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원유 채취 산업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마약 밀매, 매춘, 그리고 폭력 등 사회적 무관심으로 이 검은 열대 지역은 개인들 간의 불신과 편견,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했다. 이처럼 멜초르는 ‘검은 열대지대’라고 명명한 공간에서 추출적 자본주의가 멕시코만의 삶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풍의 계절』의 검은 열대 지대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검은 열대지대’는 베루크루스 지역의 사실적인 요소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당대 멕

시코의 현실을 은유하면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을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라 마토사’ 같은 상상 속의 공간은 낯설지 않았다. 마콘도, 코말라, 산타마리아 등의 문학적 공간들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는 공간으로 변해왔다. 라 마토사 역시 멕시코 사회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적인 공간인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태풍의 계절』이 멕시코의 현실을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멜초르는 “멕시코 사회에는 다양한 환경의 많은 장소들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어둡고 위험한 장소들이 있다”고 대답했다(Serrato 2022:44-45). 즉, 라 마토사가 멕시코 당대를 구성하고 있는 빈곤과 폭력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 마토사는 신자유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멕시코 사회의 징후적인 공간이자, 여성 차별과 트랜스젠더 혐오와 같은 젠더 폭력을 다룸으로써 사회적 위기를 가장 예민한 방식으로 감당하는 인물들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이 ‘검은 열대 시대’는 멕시코만의 석유 채취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회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빈곤과 폭력이라는 신자유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를 은유하는 보편성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V. 빈곤포르노 혹은 서사전략

『태풍의 계절』이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제3세계의 문제들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듯이, 이 작품이 포함된 문학 랜덤 하우스(Literature Random House) 출판사의 작품들은 이른바 ‘빈곤 문학’ 시장(mercado de la llamada ‘literatura de la pobreza’)을 개척하고 있다. 즉, 이 시리즈를 구성하는 작품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태평양 국가들의 빈곤 계층이 겪는 고통과 폭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Serrato 2022:52-53). 이른바 “컬트 작가”로 독자적인 소설 미학을 가지고 있는 멜초르의 『태풍의 계절』 역시 멕시코의 빈곤을 다루면서 일종의 “출판 유행(fenomeno editorial)”이 되었다(Ortuño 2020:128). 그렇다면 이러한 대중적인 인기를 해석하는 방식에 관

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 시기 빈곤과 폭력이 만연한 멕시코 사회, 나아가 이런 빈곤과 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빈곤포르노'의 상투성들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Serrato 2022:39).⁶⁾

그런 약령들은 누가 자기를 받아 줄지 보려고 언제나 산 사람 주위를 얼쩡거리거든. 주로 불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주술 의식을 행하는 이들, 또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대상이란다. 불행하게도 우리 마을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지. 그건 이곳에 유독 아프리카의 후손들이 많이 서이기도 하고, 인디오들이 가진 우상 숭배 풍습, 가난과 빈곤, 그리고 무지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254)

멕시코 현실에 대해 빈곤포르노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신부와 브란도 어머니의 대화 속에 잘 드러난다. 라 마토사 마을을 짓누르는 빈곤과 폭력이 구조적인 층위의 것이 아니라, 많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후손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진 우상숭배 풍습과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글로벌 시장의 독자들을 위해 멕시코의 빈곤을 흥미 거리로 제공하고, 빈곤의 원인을 아프리카계 후손들과 원주민에게 돌리는 상투적인 도식에 따르고 있다. 전형적인 빈곤포르노의 도식인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출판사는 제3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서사 모델을 제시하면서,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을 회피하고 사회적 갈등들을 눈요기 감으로 제공했다.

호세 에두아르도 세라토(José Eduino Serrato)는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페미니스트 문학을 가장한 빈곤포르노 시장의 독자를 위한 서사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한다. 열대 지방의 농촌 마을, 마약 소비, 범죄들 그리고

6) 박은하에 따르면 ‘빈곤포르노’라는 말은 영국 언론 「더타임스」 칼럼니스트 엘리 스 마일즈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제1세계 관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인도의 가난을 오락거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다. 이후 빈곤 포르노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타인의 가난과 비참함을 재현하는 방식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박은하(2022.11.27.), 「‘빈곤 포르노’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1171623001#c2b> (검색일: 2023.08.31.)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본 성폭력 등은 멕시코 현실의 혼란과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르노적 담론을 도입하기 위한 마케팅의 정당화라는 것이다. 구조화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여성 차별을 ‘포르노 미학’으로 그려내고, 소수자 살인을 “감정적(pasional)” 이슈로 제시함으로써 젠더 폭력을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Serrato 2022:41-42). 이러한 유형의 출판 전략이 글로벌 출판 시장을 분석하고 상업화하는 글로벌 출판 자본의 메카니즘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빈곤포르노라는 전략 속에서 빈곤과 폭력을 흥미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안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성적인 관계들을 과장하는 ‘포르노적’인 전략을 따른다는 것이다.

2021년 『태풍의 계절』이 넷플릭스에서 영화화되면서 멜초르는 상업적으로 ‘티켓 파워’를 지닌 작가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빈곤포르노라는 출판 전략이 영화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그의 작품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주 소구되는 자원들이 그의 작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자세하게 인용하지 않겠지만, 13살 노르마가 의붓아버지인 페페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209-211), 노르마와 루이스미가 항문성교를 하는 장면(167-168), 브란도가 포르노 비디오에서 어린 소녀의 수간 장면을 보는 장면(260-262), 차벨라가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223-224), 마을 청년들이 사육제 축제에서 취한 소녀와 성교하는 장면(272-273), 브란도가 유부녀인 레티시아와 관계를 맺는 장면(275-277), 브란도가 루이스미와 동성에 관계를 갖는 장면(299-300) 등이 대표적이다. 작품 속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빈곤과 폭력 속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겪어야 하는 주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기제로 사용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야기 맥락과 잘 어울리지 않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고 길게 서술됨으로써 저자의 의도에 대한 혐의가 제기된다.

앞에 인용한 몇몇 성적인 장면들은 성적 관계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개인들 사이의 성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포르노적인’ 시선을 가지고 서술되면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남성우위의 쾌락 이미지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포르노 미학의 규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Serrato 2022:45-46). 『태풍의 계절』의 성적인 장면들이 보여주는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이른바 하드 코어 형식에 빛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트 산업의 일부로서 하드 코어는 포르노 장르에서 ‘머니 샷’ 도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역시 이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출판 전략의 일환으로 남성중심적 관점에 의해 포섭된 여성적 글쓰기가 결국에는 반페미니즘적 가치들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Serrato 2022:54-55). 멜초르의 서사 전략이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지만, 남성중심적 포르노 시선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태풍의 계절』에 나타난 저개발 열대지방, 즉 검은 열대 지대의 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는 빈곤포르노 공식을 강화하고 있다.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 되면서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성적 장면들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출판 자본의 출판 전략 속에서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즉, 작가가 이것을 자기 의지로 “제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Serrato 2022:55). 소설 역시 시장에서 이윤을 만드는 상업적 기제이기 때문에 설령 소설이 이 상업적 메카니즘을 비판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징적 상품들의 소비와 연계된 전략이 존재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소설이 초국가적 대기업에 소속된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 문학에서 의해 출판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Tijerina Martínez 2022:14-15). 21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또 영화로 각색되어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공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설이라는 상징 자산을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하려는 출판 자본의 전략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글로벌 출판 자본의 상업적 전략 속에서 독자적인 소설미학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다. 글로벌 출판 시장과 영상 매체에 기초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상업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독자적인 소설 미학과 자신만의 독자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태풍의 계절』이 거둔 상업적 성공은 그가 이러한 여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I. 결론

2019년 안나 제거스 국제문학상 심사위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의 계절』은 정치소설로 간주된다.⁷⁾ 전적으로 자본주의 비판을 다룬 작품은 아니지만, 정치소설로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위기 속에서 빈곤과 폭력 문제, 특히 여성,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1세기 초반의 다른 많은 멕시코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멜초르의 소설은 신자유주의 이후 빈곤과 폭력에 의해 황폐화 되고 불안정한 신체들이 거주하는 현대 멕시코를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의 배경인 라 마토사는 정치, 종교, 경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묵시론적인 공간이다.

라 마토사는 유전 지대와 주도를 연결하는 도로 변에 위치한 맹그로브 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파생한 멕시코 사회의 위기를 보여준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해 유전 지대를 개발하고 도로를 건설했지만, 이 마을은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마녀의 저택처럼 외부와 고립되어 황폐화되어 있다. 라 마토사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공간인 것이다. 돈을 얻기 위해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녀의 집에 숨겨져 있는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찰들, 마녀의 집에서 돈을 찾아 낸 경찰들의 죽음 등은 이런 국가 권력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태풍의 계절』은 마약과 알콜중독이 만연한 지역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인물의 살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연계된 부패의 결과로 폭력을 설명하는 나르코 소설과는 다르다. 라 마토사로 상징되는 ‘검은 열대 지대’는 미멕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한 기존의 소설들과는 차별적으로, 열대 해안 지대의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의 욕망과 좌절을 그려낸다. 이렇게 『태풍의 계절』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그려내는 또 다른 전형적인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 장에는 매장을 담당하는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자유주의 위기

7) “Fernanda Melchor fue premiada en Alemania”, *Excelsior*(2019.6.19.).

<https://www.excelsior.com.mx/expresiones/fernanda-melchor-fue-premiada-en-alemania/1319435>

에 대한 멜초르의 비극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는 현실 밖에 존재하는 빛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시신들에게 위로를 던진다. 이러한 장면은 멕시코인들이 현실 속에서 직면해야 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멜초르의 『태풍의 계절』이 글로벌 출판 자본의 요구하는 상업적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글로벌 독자들을 위해 멕시코의 빈곤을 흥미거리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빈곤포르노의 도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본 성적인 장면들은 역시 글로벌 출판 시장을 분석하고 상업화하는 글로벌 출판 자본의 메카니즘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화 국면에서 글로벌 출판 시장이 그려놓은 공식 밖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반론 또한 가능하다. 영상 매체에 토대를 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득세하는 당대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일종의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도 작가의 역량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멜초르는 '검은 열대 시대'와 '범죄 기사'의 미학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미학과 독자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 참고문헌

- 박은하(2022.11.27.), 「‘빈곤 포르노’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1171623001#c2b> (검색일: 2023. 8. 31.)
- Ávalos Reyes, Marcos Eduardo(2019),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una lectura del cuerpo desde el terreno del chisme y la abyección*,” *Connotas: Revista de crítica y teoría literarias*, 19, 53-70.
- Cabrera Manuel, M. I.(2020), “Reseña de Melchor (2017): *Temporada de Huracanes*,” *Caleidoscopio: Revista Semestral de Ciencias Sociales y Humanidades* 23:42, 303-307.
- Escalona, Fernanda(2023), “‘Somos las nietas de las brujas que no pudieron quemar’: aborto, brujas, parteras, interseccionalidad y soro/doloridad en textos ficcionales de autoras latinoamericanas actuales,” *Revista Letral* 30, 215-243.
- Francesco Di, Bernardo(2022), “Capitalismo global y petroficción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Valenciana* 29, 81-101.
- Godínez Rivas, Gloria Luz y Román Nieto, Luis(2019), “De torcidos y embrujos: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Anclajes* XXIII:3, 59-70.
- Godínez, Gloria Luz y Román, Luis Alfredo(2018), “En el corazón del crimen siempre hay un silencio: Entrevista con Fernanda Melchor,” *Revell* 3: 20, 188-195.
- Guerra Hernández, María Guadalupe(2022), *Análisis de las configuraciones de la corporalidad femenina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Tesis maestra, Universidad de Guanajuato.
- Hernández Bautista, Héctor Justino(2022), “Masculinidades en dos personajes de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El*

- Pez y la Flecha: Revista de Investigaciones Literarias* 2:4, 150-171.
- Hernández Ojendi, Alejandra(2019), *Violencia y personajes femeninos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Tesis mastral,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 Hernández, Héctor Justino(2022), “Masculinidad fallida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Munra, el negativo de un patriarca,” *Cuaderna Vía* 5:1, 30-37.
- Íñiguez, Edgardo(2019), “Una retórica de la violence. Necroescrituras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Atlante* 11, 1-12.
- Islas Arévalo, Marco Antonio(2021), “Violencia de género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de la violencia subjetiva a la violencia sistémica,” *Sincronía* 79, 260-275.
- Lemus, Rafael(2022), “En los márgenes de la nación: geografías imaginarias en *Temporada de huracanes* (2017) de Fernanda Melchor,” *BHS* 99, 163-170.
- Melchor, Fernanda(2017), *Temporada de huracanes*, Literatura Random House (엄지영 역(2022), 『태풍의 계절』, 서울:을유문화사)
- Morales Hernández, Lya(2023), “Crimen, acumulación salvaje y el trópico veracruzano: las tramas de la “NAFTAficación” en las crónicas negras de Fernanda Melchor,” *Humanitas:Revista de teoría, crítica y estudios literarios* 2:4, 127-168.
- Moreno, Clarissa I.(2021), “La figura de la bruja en las novelas de Fernanda Melchor y Brenda Lozano: Un estudio hacia el ecofeminismo, el folclor mexicano y la violencia hacia la mujer,” *Theses and Dissertations* 166. <https://rio.tamui.edu/etds/166>
- Ortuño, Antonio(2020), “Entrevista con Fernanda Melchor: ‘Aún había mucho que decir del trópico negro’,” *El Oficio*, 128-133.
- Robles Lomelí, Jafte Dilean(2021), “El chisme como representación histórica de la ausencia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Revista de Historia de América* 161, 436-458.
- Sánchez, Ada Aurora(2021), “Relecturas del trópico veracruzano en la

- narrativa de Fernanda Melchor,” *Boletín hispánico helvético: historia, teoría(s), prácticas culturales* 37-38, 77-96.
- Serrato, José Eduardo(2022), “Fernanda Melchor y el mercado editorial de la literatura de entretenimiento”, *Connotas: Revista de crítica y teoría literarias* 35, 35-60.
- Suárez Noriega, José Manuel(2020), “Lo neofantástico y lo abyecto en Falsa fiebre y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Connotas: Revista de crítica y teoría literarias* 21, 85-121.
- Tijerina Martínez, Francisco Gerardo(2020), *Estética, ética y consumo: el caso de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Tesis maestra, Insituto tecnológico y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 Vázquez Soriano, Michelle(2023), “Fascinación y reescritura de la nota roja en *Temporada de huracanes*(2017) de Fernanda Melchor,” *Kañina: Rev. Artes y Letras* XLVII:2, 143-163.
- Walczak, G. (2020), “La violencia de género en tres novelas policiacas negras de escritoras mexicanas: Patricia Valladares, Laura Esquivel y Fernanda Melchor,” *Acta Hispanica* II, 617-625.
- Wolfenzon, Carolyn(2022), “Brujería, carnaval y capitalismo en *Temporada de huracanes* de Fernanda Melchor,” *Confluencia* 37:2, 96-108.

❖ ABSTRACT

The narrative strategy and “el trópico negro” of
Temporada de huracanes

Lee, Seong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Fernanda Melchor's *Temporada de huracanes*, currently considered as one of the leading writers of Mexican novels, deals with the murder of 'La bruja'. The author, who is a journalist, takes inspiration from criminal cases and novelizes the marginalized people of 'La Matosa'. This novel not only introduces their lives sensationally and stimulatingly, but also depicts Mexico at the time of experiencing the crisis of neoliberalism.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of La Matosa, a fictional village based in Veracruz, is a metaphor for the Mexican reality after neoliberalism.

Melchor names his novel space as “el trópico negro”. ‘El trópico negro’ is the space where the burning sun and hot, dry climate jeopardize individuals' survival, in which individuals rely on spontaneous pleasure rather than planned life. The characters and events in *Temporada de huracanes* are also affected by the atmosphere of this “el trópico negro”. Melchor pursues universality beyond the specific area of Veracruz through the space of “el trópico negro”.

On the one hand, there is criticism that Melchor is following the formula required by the global publishing capital. Of course, it is also possible to argue that it is impossible to write a novel outside the formula drawn by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Melchor is creating his own novel aesthetics that portray the reality in a situation where the entertainment industry based on visual media is domina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imaginary space of La Matosa in *Temporada de huracanes* and Melchor's narrative strategy to reveal the Mexican situation through criminal cases.

Keywords: Fernanda Melchor, *Temporada de huracanes*, nota roja, el trópico negro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